

| 매헌(梅軒)



윤봉길기념관 매헌(梅軒)은 약 20여 평의 정자형태 2층 목조 건축물로, 기념관 앞 광장 좌측 옥외전시관에는 윤봉길의사의 전언, 출생 및 국내활동, 망명, 의거 등의 내용이 전시되어 있고, 1층에는 추모홍상, 의거 성과 및 영향, 조국 광복 등을 전시, 2층은 영상물 상영 및 교육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1994년 윤봉길 의사가 1932년 일본군 요인을 폭살한 홍커우공원 의거를 기념해 상해시 홍커우구 인민정부와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건립하였다.

尹奉吉纪念馆-梅轩是一座约为66平米的二层木制亭阁建筑。纪念馆前广场左侧的露天展区展示着尹奉吉义士的前言、出生、韩国国内活动、流亡、义举等内容。梅轩一层设有追慕半身像，还陈列着义举成果和影响、祖国光复等资料，二层被用为视频播放与教育活动场所。

1994年为纪念1932年尹奉吉义士刺杀日军政要的虹口公园义举，上海市虹口区人民政府与尹奉吉义士纪念事业会共同修建

- **2001 윤봉길 의사 영정 보관** 保管尹奉吉义士遗像
- **2002 유물 전시 시작** 展览遗物
- **2003 ‘매헌’ 수리·보수 및 한국 독립기념관의 협조를 받아 윤봉길 의사의 유품들을 이곳에 옮겨와 전시** 修复梅轩/在韩国独立纪念馆的协助之下，移入尹奉吉义士的遗物后开始展览
- **2013 루쉰공원 전체 개보수 공사로 휴관** 因修缮鲁迅公园，暂时休馆
- **2015 4월 29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리모델링을 한 후 재개관** 为迎接韩国光复70周年，4月29日全新开放

우리 청년시대는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
일층 더 강한 사랑이 있는 것을 각오하였다.
나의 우로와 나의 강산과
나의 부모를 버리고라도 이 길을 떠나간다.

중국 칭다오에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1931.10.18

较之父母之爱、
兄弟之爱、妻儿之爱，
我们青年一代已经觉悟到还有一种更加刚毅的爱。
即使是抛弃我的家园、我的江山、我的父母，
我也决心要走这条路。

给母亲的一封信
1931年10月18日，
发自中国青岛

Contac us

루쉰공원(구 홍커우공원) : 2288 Sichuan N Rd, LuXun GongYu-an, Hongkou Qu, Shanghai Shi. 중국 지하철 8호선 홍커우축구장역(虹口足球场) 1번출구

鲁迅公园（原名虹口公园）：中国上海市虹口区四川北路2288号 地铁8号线虹口足球场站1号出口

운영시간 7:30 ~ 18:00 (1月-6月, 10月-12月)
开放时间 7:30 ~ 18:30 (7月-9月)
폐관 30분전 입장금지 闭园前30分钟停止售票

입장료 15元
门票

이 안내서는 배우 송혜교와 성신여자대학교 서경덕 교수의 후원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본册由韩国影视演员宋慧乔与韩国诚信女子大学教授徐庆德提供赞助。

윤봉길의사 생애사적전시관

尹奉吉义士生平事迹陈列室



| 매헌(梅軒) 윤봉길

尹奉吉



1908년 충남 예산군 출생으로, 23세 되던 해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중국으로 망명한 뒤, 1932년 4월 29일 홍커우공원 폭탄 투척 사건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같은 해 일본 가나자와 교외의 형무소로 옮겨져 장렬히 순국, 대한민국 독립사에 큰 업적을 남겼다.

号梅轩，1908年出生于韩国忠清南道礼山郡，23岁流亡到中国，行前曾留遗书称“丈夫出家生不还”。1932年4月29日因虹口公园爆炸案被当场逮捕，同年被押往日本金泽郊外的刑务所后壮烈殉国。尹奉吉义士为大韩民国的独立做出了巨大的贡献。

장부출가생불환

망명의 길을 떠나다

丈夫出家生不还 - 踏上流亡之路



윤봉길, 김구

일제 경찰들의 감시로 농촌계몽운동에 한계를 느낀 윤의사는 심사숙고 끝에 1930년 3월 가족을 남겨두고 고향을 떠나 조국의 독립을 위한 망명의 길을 나섰다. 이후 1932년 1월, 윤의사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김구를 찾아가 동경의거와 같은 거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4월 26일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적의 장교를 도륙할 것을 맹세하는 입단 선서문을 쓰고 한인애국단에 가입하였다.

备受日本帝国主义警察的监视，尹奉吉义士逐渐意识到农村启蒙运动的局限性，经过一番深思熟虑，1930年3月为实现祖国的独立，他告别家人，踏上了流亡之路。1932年1月，尹奉吉义士找到了当时在大韩民国临时政府的金九，表达了希望参加类似于东京义举等抗日活动的意愿。4月26日，尹奉吉义士写下“为恢复祖国的独立与自由，屠戮敌人的将校”的入团宣誓文，正式加入韩人爱国团。

일제침략자들을 응징하다

严惩日本帝国主义侵略者

1932년 4월 29일 오전 11시 50분경, 축하식 단상 위에 일본군부와 정계의 요인 7명이 모두 자리하여 일본국가의 마지막 소절을 부를 무렵 무사히 잠입한 윤의사는 수통 모양의 폭탄을 중앙의 단상으로 던졌다. 단상 중앙에 떨어진 폭탄의 폭발로 가와바타 상하이 거류민단장은 치명상을 입어 다음날 사망하였고 시라카와, 노무라, 우에다 등 한국과 중국 대륙 침략에 앞장선 일본 군부와 정계의 핵심인물들 다수가 중상을 입었다.

1932年4月29日上午11点50分，当七名日本军政首脑在检阅台上高唱日本国歌的最后一小节时，尹奉吉义士毅然冲出人群，将水壶炮弹投向位于会场正中央的检阅台。炮弹顿时爆炸，导致坐在台上的日本驻沪留民团行政委员长河端受致命伤，于翌日死亡。此外，白川、野村、上田等侵略韩国与中国的大部分日本军政首脑也受到了重伤。



의거 전 홍커우 공원



의거 직후 홍커우 공원



매한 윤봉길 기념관



홍커우공원 의거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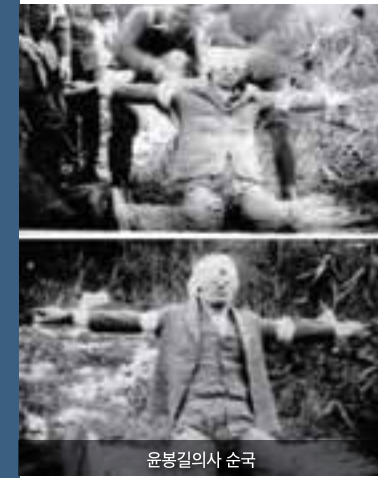
虹口公园义举的影响

윤봉길 의사 의거 후, 중국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였고 중국육군중앙관학교에 한인 특별반을 설치하는 등 한국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성원하였다. 또한 한동안 침체일로에 빠져 있던 임시정부가 다시 독립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도 이 의거에 힘입은 바가 컸다. 그리고 전 세계 언론을 통해 한국이 일제의 부당한 식민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리게 되었고, 한국과 한국인의 항일독립의지를 만방에 알릴 수 있게 되었다.

由于他的义举当时的中国政府开始全力支持大韩临时政府，并在中国陆军中央军官学校设立韩人特别班，积极支援韩国临时政府的独立运动。这次义举让一度处于低潮的独立运动出现了新的转机，让韩国临时政府恢复了独立运动的轴心职能。此外，通过各国的舆论，又一次向国际社会宣告了韩国受到日本不正当殖民统治的事实，同时也将韩国与韩国人的抗日独立意志弘扬至五湖四海。

일본에서 순국하다

在日本以身殉国



윤봉길의사 순국



윤봉길의사 유해발굴

일제는 윤의사를 혹독하게 조사, 심문한 후 1932년 5월 25일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언도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윤의사는 삼엄한 경비 속에 일본의 오사카형무소로 이송되어 수감되었다가 12월 19일, 가나자와에서 순국하였다. 25세의 나이로 이국(異國) 땅에서 순국한 그의 유해는 1946년 일본에서 박열과 이강훈의 주선으로 본국으로 봉환되어 효창공원에 안장되었다.

日寇对尹奉吉义士进行残酷的拷问之后，1932年5月25日在军法会议上判处尹奉吉义士死刑。同年11月，尹奉吉义士在森严的警备之下被解往日本大阪陆军刑务所，12月19日在金泽壮烈捐躯，年仅25岁。尹奉吉义士在异国他乡，结束了年轻的生命，1946年朴烈和李康勋等人出面将尹奉吉义士的遗骸从日本带回祖国，安放于韩国孝昌公园。